2023년 / 3월 1주차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2월 28일(화) 15시 : 기자촌구역 재개발 기록화사업 인터뷰

○ 3월 1일(수) : 3·1절 휴무

○ 3월 2일(목) 11시 : 전주 3·13 만세운동 재현행사 회의

■ 연구원 소식

○ 연구원 이사회 개최

지난 금요일 연구원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김병문 이사장님을 비롯해 모두 여덟 분의 이사님이 참석해 2022년 사업평가 및 2023년 사업계획안을 중심으로 안건을 논의 결정했습니다. 정기이사회를 통해 의결된 2023년 사업 계획을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상세 사업은 다음 뉴스레터에 안내드리겠습니다.

■ 역사속의 오늘

조선 여성 남자현 붙잡히다 - 1933. 02. 27

1872년 12월 7일 경북 안동에서 유학자 남정한의 딸로 태어난 그는 일곱 살에 국문을 여덟 살에 한문을 익혔고 열아홉에 아버지의 제자 김영주와 혼인했다.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과 반가의 아내로 평범한 삶을 열게 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강행되자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게 된다. 그의 남편 김영주 역시 "나라가 망해 가는데 어찌 집에 홀로 있을 것인가. 지하에서 다시보자"는 인사를 남기고 의병전쟁에 참전한다. 김영주는 마지막 인사대로 1896년 7월 11일 진보면 홍구동 전투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전사하고 만다. 남편이 죽은 지 3개월만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김성삼이라 짓고 홀몸으로 시댁을 건사하며 이십여년을 보내게 된다.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아들과 함께 서울의 3.1운동에 참여한 후 만주로 망명을 결심한 그는 남편이 전사할 당시 입고 있던 옷을 챙겨 입고 김동삼 백서농장에 정착했다. 그러나 농장이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닫게되자 아들 김성삼을 신흥문관학교에 입교시키고 자신은 서로군정서에 입대한다.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군인이 된 것이었다. 1921년 이른바 자유시 참변으로 한인 독립군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자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잘라 연대와 통합을 호소했다.

1923년 침체의 늪에 빠진 임시정부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가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어 대립을 이어가자 다시 손가락 하나를 잘라 통합을 호소했다. 이후부터 남자현은 '세 손가락의 여장군'으로 불리게 되었다.

1926년 봄, 그는 박청산, 이청수, 김문거 등과 함께 사이코 마코토 조선 총독 암살계획을 세운다. 거사 시기를 엿보던 그해 4월 26일 순종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총독부 고위 관료들이 조문하기 위해 창덕궁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4월 27일 일본인 가게 점원 송학선이 창덕궁 입구에서 일본인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하다 잡히는 사건이 벌어지자 경성일대는 대대적 검속 바람이 일어나 그 역시 조선을 벗어나 만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1931년 7월 만주 길림성 장춘현에서 만보산 사건이 터졌다. 일제는 이 사건을 이용하여 만주를 접수했다. 만주 사변이다. 만주 사변 직후 일제는 독립군 색출 작업을 강화했다. 이때 남자현이 믿고 의지했던 동지, 김동삼이 체포됐다. 남자현은 김동삼 구출작전을 계획했지만 이마저 실패로 끝났다. 김동삼은 10년형이 선고되어 1937년 3월 순국했다.

1933년 1월 말, 남자현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일제가 수립한 만주의 괴뢰정부 만주국 건국기념일에 관동군사령관 겸 전권대사 무토 노부요시 육군대장을 암살하기로 한 것이다. 그때 남자현의 나이는 예순한 살이었다. 한국인 동지들과 중국인이 남자현을 중심으로 모의했고 남자현은 권총과 폭탄 등을 챙겼다. 거사일은 3월 1일(만주국 수립 날짜)로 잡았다. 남자현이 거지 할머니 행세를 하며 식장에 가서 무토 노부요시를 단독 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는 거사 장소를 여러 번 답사하고 송도사진관에 들러 마지막 사진도 찍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기념식장을 답사할 때 남자현은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1933년 2월 27일의 일이었다.

남자현은 하얼빈 주재 일본영사관 감옥으로 끌려갔다. 혹독한 고문을 견디며 6개월을 버텼고 8월부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투쟁을 전개했다. 그는 "이제 너희가 주는 밥은 먹지 않는다. 너희가 감히 나를 살리고 있으니 내가 스스로 죽어 너희들을 이겨야겠다. 조선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내 죽음은 끝이 아니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사는 것이 곧 죽는 것이요, 나는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독립된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투쟁을 선택했던 것이다. 남자현이 사경을 헤매자 일본은 그를 병보석으로 풀어주었다. 그는 곧 적십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김성삼과 손자 김시련이 오자 한국인이 운영하는 여관으로 옮겨졌다. 죽기 전 그는 감춰둔 행낭에서 249원 80전을 꺼내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다.

"이 돈 중에서 200원은 조선이 독립되는 날 정부에 독립축하금으로 바치라. 그리고 손자 시련을 대학까지 공부시켜서 내 뜻을 알게 하여라. 남은 돈 49원 80전의 절반은 손자 공부시키는 데 쓰고 나머지는 친정에 있는 손자를 찾아 교육시켜라."

그리고 8월 22일, 숨을 거뒀다.

손자 시련에게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정신에 있다. 독립은 정신으로 이루어지느니라"라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남자현의 돈은 1946년 3·1절 기념식 때 김구와 이승만 등 임정요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영원에게 전달됐다.